

광주경총, 대학과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법 찾는다

조선대와 'G-CEO·G-HR 포럼'...산학협력 모델 제시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연계 '인재 공급 통로' 구축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역 인재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경총은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글로벌대30으로 선정된 조선대학교와 지역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G-CEO 포럼' 및 'G-HR 포럼'을 개최했다.

행사는 청년 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경제계와 대학이 공동으로 기획한 대규모 산학협력 프로젝트로, 오는 21일과 다음달 12·17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포럼은 최근 청년 세대의 중소기업 인

식 문제와 산업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 교육의 불일치 문제가 지역 경제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포럼은 기업의 의사 결정권자와 실무 책임자를 분리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운영되며 G-CEO 포럼은 지역 기업 대표 및 임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광주경총의 대표적 인프라인 '금융조찬포럼'과 연계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기업의 장기적 인재 양성 전략과 미래 비전을 공유한다. 대학과 기업 최고위급의 협력 의지를 다지는 'Top-down 방식'의 구성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19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글로벌대30으로 선정된 조선대학교와 지역 핵심 인재 양성 및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G-CEO 포럼' 및 'G-HR 포럼'을 개최했다.

대된다.

G-HR 포럼은 해양에너지, 오택캐리어, 코비코, 대우에이텍 등 지역 대표 기업의 인사(HR) 실무 책임자 70여명이 참여한다. 광주경총 인사노무 관리자협

의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직무 역량과 조선대학교의 학과별 인재 특성을 1대 1로 매칭,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행 창구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포럼은 조선대의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AI, 모빌리티,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초격차 기술 산업 분야에서 양성하는 핵심 정주 인재들을 광주경총의 850

여 회원사와 직접 연결, 단순한 만남을 넘어 맞춤형 인재 공급 통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많은 기업이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호소하지만 정작 청년들은 다닐만한 기업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은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학과 소통하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이 원하는 인재를 함께 키워나가는 지속 가능한 상생 고용 생태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포럼 참여 기업 인사담당자를 조선대 인사노무관리자협의회 정기 초청 명단에 추가하고 CEO들에게 금융조찬포럼에서 사업을 설명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후 관리를 통해 견고한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이어갈 방침이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금호타이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 딜러 초청 행사를 열고 상용차 박람회 참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중남미 시장 공략 속도 낸다

딜러 행사·박람회 참가...TBR타이어 판매 주력

금호타이어는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주요 딜러 초청 행사를 열고 상용차 박람회에 참가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2025 중남미 마살 딜러 컨벤션'을 열었다.

행사에는 중남미 12개국 17개 주요 딜러사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금호타이어의 수출용 브랜드 '마살'의 운영 전략과 주요 신제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난 11~14일에는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사페코에서 열린 브라질 트럭·운송 박람회에 참가해 전용 부스를 마련하고 트럭·버스용 타이어 주요 신제품을 선보이며 트럭, 트레일러 제조사 및 상용차 타이어 딜러사들과 소통했다.

중남미 지역은 육상 운송 의존도가 높아 상용차 타이어 이용 비중이 크고, 비포장 도로가 많아 요구되는 품질 수준도 높다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박람회 참석을 계기

로 상용차 신제품 출시를 통해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선보이며 중남미 시장 공략을 한층 가속화 할 계획이다.

임승빈 금호타이어 영업총괄 부사장은 "중남미는 자동차 생산 증가와 타이어 수요 확대로 꾸준한 성장세가 있는 시장"이라며 "마살 브랜드를 비롯해 중남미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딜러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이고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시장에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그랜저, 드라마 '모범택시3'에 등장

'작전 차량'은 스타리아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 그랜저가 하반기 기대작인 SBS드라마 '모범택시 3'를 통해 시청자들과 만난다.

현대차는 그랜저가 오는 21일부터 방영

되는 SBS 금토 드라마 '모범택시 3'에 등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랜저는 주연 김도기(이제훈 분)가 모는 주요 차량으로 활용된다.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의 작전 차량으로 스타리아가 함께 등장할 예정이다. 이외에 쏘나타 택시 등 현대차 라인업이 드라마에서 선보인다.

그랜저가 선택된 배경을 담은 스포츠필름이 지난 15일 SBS 공식 유튜브 채널 '스브스캐치'를 통해 공개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모범택시 3는 인기드라마 시리즈로, 이번 기회를 통해 시청자들이 그랜저를 비롯해 다양한 현대차 차량을 안방에서 만나 보시길 기대한다"며 "드라마 속 차량을 통해 현대차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

KT, 사외이사 선임 절차 돌입
26일까지 접수...이사회 개편 속도

KT가 차기 대표이사 선임 작업과 병행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에도 착수하며 이사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KT 주식을 1주 이상·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모집 분야는 미래기술, ESG, 회계, 경영 등 4개다.

이번 공고는 2023년 6월 선임돼 내년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종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중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등 사외이사 4명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올해 임기 만료가 예정됐던 김용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 센터장,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등은 지난 3월 모두 재선임돼 2028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다. KT가 현재 선임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대표 교체와 맞물려 이사회 재편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갖고 연탄 4만장을 기부했다.

주택건설협 광주·전남도회, 사랑의 연탄나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 4만장 전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19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에서 '2025년 사랑의 연탄나눔 전달식'을 갖고 연탄 4만장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지난 2015년부터 회원사와 함께 하는 사랑의 연탄나눔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21만9000장을 후원했다.

이번에 기증된 연탄은 협회와 골드클래

스프 등 21개 후원사가 동참해 마련됐다.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은 "장기간의 부동산시장 침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며 정성을 모아 준 회원사에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준 연탄이 따뜻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택건설업계는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